사도행전 소개

조엘 B. 그린(Joel B. Green) 박사는 사도행전이 초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합니다.

풀러신학교에서 신약 해석학을 가르치고 있는 Joel Green 교수입니다. 사도행전에 관해 몇 분 동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시작된 두 부분으로 된 이야기 중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는 몇몇 주요 강조점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강조할 수 있고, 장소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주요 주제는 사도행전이 어떤 면에서는 초기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 물론 이것은 사도 행전 2 장에 나오는 오순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영적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 장 1~13 절에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고, 궁금해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엘 2 장의 구절을 언급하는데, 거기서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영적 능력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게 주어진 선교를 위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 장 8 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강림에 따른 분명한 선교 방향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할은 교회를 선교로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실천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나눔의 실천, 선교의 실천, 기도의 실천, 성경 해석의 실천,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실천입니다.

이 모든 것은 9 장부터 시작되는 주제에서 다루어집니다. 사도행전 전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통해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초기 교회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다지 좋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무리가 없이 끝납니다. 마치 사도행전이 다른 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아직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상한 이야기를 아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펜을 들고 교회의 이야기를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분별력을 보여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나눔, 즉 친교를 보여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신실함의 문제로 이어집니다.